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2021. 12.



함께하는 복지 행복한 장애인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Chung-buk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충청북도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 연구책임자 : 김 현 진 (청주대학교)
- 공동연구원 : 김 창 수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 강 훈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김 보 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 지 형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장애인복지관
 - 괴산군장애인복지관
 - 단양장애인복지관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 영동군장애인복지관
 -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방법 | 3 |
| I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 4 |
|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4 |
|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 13 |
|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 15 |
| 4.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과정 | 18 |
| III.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20 |
|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분석 | 20 |
| 2.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 30 |
| IV. 결론 및 제언 | 44 |
| 1. 연구요약 | 44 |
| 2. 제언 | 46 |
| 3. 연구의 한계 | 54 |
| □ 참고문헌 | 56 |

표 목 차

| | |
|---|----|
| <표 II-1> 전국 시도별 발달장애인 현황 | 4 |
| <표 II-2>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현황 | 5 |
| <표 II-3> 장애인의 교육 수준 : 전체인구 비교 | 6 |
| <표 II-4>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 6 |
| <표 II-5>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 현황 | 7 |
| <표 II-6>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시도별 운영 현황 및 운영 주체 | 7 |
| <표 II-7> 충청북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현황 | 8 |
| <표 II-8>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관 수,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 현황 | 9 |
| <표 II-9>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 유형별 학습자 현황 | 10 |
| <표 II-10>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 운영 주체 현황 | 11 |
| <표 II-1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 유형별 학습자 현황 | 12 |
| <표 II-12>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 13 |
| <표 II-13>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 | 15 |
| <표 II-14>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세부 내용 | 17 |
| <표 III-1> 2020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프로그램 분류 | 20 |
| <표 III-2> 2021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프로그램 분류 | 21 |
| <표 III-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 22 |
| <표 III-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영역별 프로그램 | 24 |
| <표 III-5>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예·결산 | 26 |
| <표 III-6> 평생교육 담당 인력 현황 | 27 |
| <표 III-7> 충청북도 발달장애인과 평생교육 담당 인력 현황 | 28 |
| <표 III-8> 평생교육 협력 기관 현황 | 29 |
| <표 III-9> FGI 연구참여자 정보 | 30 |
| <표 III-10> 면담질문지 내용 | 31 |
| <표 III-11> FGI 내용 분석 결과 | 32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1] 연구 진행 흐름도 | 3 |
| [그림 II-1] 권역별 협의체 구성 | 18 |
| [그림 II-2] 중복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본모형 | 19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가경쟁력 상승이라는 이념을 위하여 수행되어지는 교육을 두루 일컫는 용어이다. 평생교육의 의미는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등 발달단계에 따라 행해지는 교육들을 수직적으로 종합한 교육, 그리고 가정 내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따라서 인간의 학습 본능을 충족시키는 평생교육은 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장애인 역시 평생교육 대상으로서 그 권리를 가진다(오영석, 박원희, 2008). 국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2000년대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부각되었고(조창빈, 김두영, 2020), 「평생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고시」 등의 법률 제·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등 법적 근거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평생교육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박성호, 길혜지, 문미정, 박미현, 김나정, 안윤정, 2017)에서 2017년 만 25세 이상 79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4.4%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6%(김성희 등, 2017)로 일반 성인과 비교 시 확연히 저조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장애 유형 중 장애 당사자의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결정력, 인지력, 학습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평생교육에서의 소외정도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심석순, 2020)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기억력에 제한이 있으며, 학습속도가 느리며 모방과 우연 학습이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송준만

등, 2012).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과 사회성 등의 영역에서도 제한이 있어 발달장애인은 성인기에 독립적으로 여가생활을 누리거나 스스로 기초 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달리 평생교육 즉, 교육적 서비스가 전 생애에 걸쳐 제공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강동선, 신진숙, 2015).

이처럼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발달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는 더딘 수준이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연구가 공감하고 지적하는 바(김기룡, 2020)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참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태 또는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가용한 예산의 부족, 평생교육기관 혹은 프로그램의 부재, 프로그램에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김기룡, 2020), 지역적, 환경적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충북의 경우 2017~2019년까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꿀잼프로젝트’라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이 이루어져 11개 시군 12개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을 통한 일부 참여자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활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성과로 나타나 평생교육 수료 후 보조강사로 활동하거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달장애인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종료되고 청주시와 충주시를 제외한 시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국가인권위원회, 2016)을 고려하여 타 장애유형과 다르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연구가 실시되었다.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과 관계자의 요구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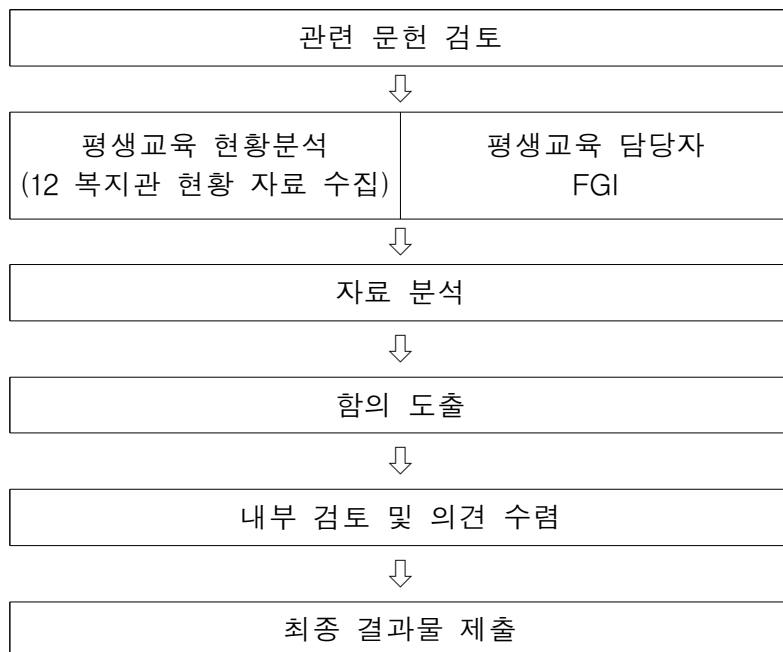
1) 문헌 연구 및 현황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범위는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으로, 각종 문헌과 충청북도 시군의 각 장애인복지관의 내부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 발달장애인 현황 및 지원근거와 정책, (2)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결산, 인력, 협력 연계기관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질적연구(Focus Group Interview)

인터뷰는 충청북도 내 각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담당자 11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답변을 청취하였고, 인터뷰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III장 참고).

[그림 1-1] 연구 진행 흐름도



I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전국 시도별 발달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등록된 장애인은 총 2,633,026 명으로 나타났고, 전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총 247,910명(9.4%)으로 이 중에 지적장애인은 217,108명(87.6%), 자폐성 장애인은 30,802명(12.4%)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북도 관내 등록된 전체 장애인은 97,932명이고, 발달장애인은 11,437명(4.9%)으로 지적장애인은 10,656명(4.9%) 이었으며, 자폐성 장애인은 781명으로 전국 자폐성 장애인 비율 중 2.5%로 조사되었다.

<표 II-1> 전국 시도별 발달장애인 현황

| 구분 | 전체 장애인 | | 발달장애인 | | | | | | | | |
|-----------|------------------|--------------|----------------|----------------|--------------|----------------|---------------|---------------|--------------|---------------|--------------|
| | 인원 | 비율 (%) | 소계 | 지적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 | | | | 인원 | 비율 (%) | 남 | 여 | 인원 | 비율 (%) | 남 | 여 |
| 서울 | 394,190 | 15.0 | 33,499 | 27,084 | 12.5 | 16,536 | 10,488 | 6,415 | 2.8 | 5,431 | 984 |
| 부산 | 176,293 | 6.7 | 14,193 | 12,118 | 5.6 | 7,361 | 4,757 | 2,075 | 0.7 | 1,722 | 353 |
| 대구 | 126,338 | 4.8 | 11,540 | 10,292 | 4.7 | 6,219 | 4,073 | 1,248 | 0.4 | 1,049 | 199 |
| 인천 | 146,321 | 5.6 | 12,479 | 10,823 | 5.0 | 6,565 | 4,258 | 1,666 | 0.5 | 1,398 | 258 |
| 광주 | 70,061 | 2.7 | 7,996 | 7,100 | 3.3 | 4,139 | 2,961 | 886 | 0.2 | 736 | 160 |
| 대전 | 72,853 | 2.8 | 7,732 | 6,650 | 3.1 | 3,937 | 2,713 | 1,082 | 0.3 | 904 | 178 |
| 울산 | 51,122 | 1.9 | 5,100 | 4,430 | 2.0 | 2,687 | 1,743 | 670 | 0.2 | 560 | 110 |
| 세종 | 12,346 | 0.5 | 1,324 | 1,116 | 0.5 | 636 | 420 | 208 | 0.0 | 172 | 36 |
| 경기 | 559,726 | 21.6 | 54,170 | 45,883 | 21.1 | 28,150 | 17,733 | 8,287 | 26.9 | 7,069 | 1,218 |
| 강원 | 101,615 | 3.9 | 9,211 | 8,435 | 3.9 | 4,909 | 3,526 | 776 | 0.2 | 644 | 132 |
| 충북 | 97,932 | 3.7 | 11,437 | 10,656 | 4.9 | 6,272 | 4,384 | 781 | 2.5 | 663 | 118 |
| 충남 | 134,250 | 5.1 | 13,301 | 12,247 | 5.6 | 7,239 | 5,008 | 1,054 | 0.3 | 887 | 167 |
| 전북 | 132,207 | 5.0 | 13,323 | 12,482 | 5.7 | 7,281 | 5,201 | 841 | 0.2 | 688 | 148 |
| 전남 | 140,942 | 5.4 | 13,064 | 12,232 | 5.6 | 7,363 | 4,869 | 832 | 0.2 | 704 | 128 |
| 경북 | 181,366 | 6.9 | 17,707 | 16,423 | 7.6 | 9,998 | 6,430 | 1,284 | 0.4 | 1,088 | 201 |
| 경남 | 188,749 | 7.2 | 17,824 | 15,744 | 7.3 | 9,423 | 6,321 | 2,080 | 0.6 | 1,709 | 371 |
| 제주 | 36,655 | 1.4 | 4,010 | 3,388 | 1.6 | 1,937 | 1,456 | 617 | 0.2 | 522 | 95 |
| 전체 | 2,633,026 | 100.0 | 247,910 | 217,108 | 100.0 | 130,767 | 86,341 | 30,802 | 100.0 | 25,946 | 4,856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2020. 12), KOSIS 통계청, 장애인 등록현황 (2020).

전국 장애인 중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97,932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시군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40,189명(41.0%)의 장애인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발달장애인 현황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4,619명으로 43.4%를 차지하고, 충주시 1,285명(12.1%), 음성군 1,117명(10.5%), 제천시 1,033명(9.7%) 순으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인은 청주시에 434명이 거주하고 있어 55.6%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충주시 119명(15.2%), 제천시 65명(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현황

| 구분 | 전체 장애인 | | 발달장애인 | | | | | | | | |
|-----|--------|--------|--------|--------|--------|-------|-------|--------|--------|-----|-----|
| | 인원 | 비율 (%) | 소계 | 지적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 | | | | 인원 | 비율 (%) | 남 | 여 | 인원 | 비율 (%) | 남 | 여 |
| 청주시 | 40,189 | 41.0 | 5,053 | 4,619 | 43.4 | 2,712 | 1,907 | 434 | 55.6 | 372 | 62 |
| 충주시 | 13,423 | 13.7 | 1,404 | 1,285 | 12.1 | 767 | 518 | 119 | 15.2 | 99 | 20 |
| 제천시 | 10,462 | 10.7 | 1,098 | 1,033 | 9.7 | 588 | 445 | 65 | 8.3 | 55 | 10 |
| 보은군 | 3,212 | 3.3 | 311 | 300 | 2.8 | 188 | 112 | 11 | 1.4 | 8 | 3 |
| 옥천군 | 5,157 | 5.3 | 581 | 558 | 5.2 | 332 | 226 | 23 | 2.9 | 17 | 6 |
| 영동군 | 4,516 | 4.6 | 396 | 375 | 3.5 | 216 | 159 | 21 | 2.7 | 18 | 3 |
| 증평군 | 2,366 | 2.4 | 286 | 267 | 2.5 | 165 | 102 | 19 | 2.4 | 14 | 5 |
| 진천군 | 4,535 | 4.6 | 495 | 461 | 4.3 | 251 | 210 | 34 | 4.4 | 29 | 5 |
| 괴산군 | 3,833 | 3.9 | 415 | 406 | 3.8 | 249 | 157 | 9 | 1.2 | 8 | 1 |
| 음성군 | 7,400 | 7.6 | 1,156 | 1,117 | 10.5 | 663 | 454 | 39 | 5.0 | 37 | 2 |
| 단양군 | 2,839 | 2.9 | 242 | 235 | 2.2 | 141 | 94 | 7 | 0.9 | 6 | 1 |
| 전체 | 97,932 | 100.0 | 11,437 | 10,656 | 100.0 | 6,272 | 4,384 | 781 | 100.0 | 663 | 118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2020. 12).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인구와 장애인 교육 수준을 비교해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39.0%로 장애 인구 13.3%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5년보다 2020년 전체인구와 장애 인구의 중졸 이하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고 대졸 이상의 비율은 증가했으며, 전체인구에서는 고졸의 비율도 감소했으나 장애 인구의 고졸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기준 전체인구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39.0%로 가장 높았고, 고졸

37.8%, 중졸 이하 23.2% 순으로 낮았으며, 장애 인구의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가 56.7%로 가장 높았고, 고졸 30.0%, 대졸 이상 13.3% 순으로 나타나 전체인구의 교육 수준보다 장애 인구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장애인의 교육 수준 : 전체인구 비교

| 구분 | 전체 인구 | | | | 장애 인구 | | | |
|-------------|------------|--------|------------|--------|-----------|--------|-----------|--------|
| | 2015년 | | 2020년 | | 2015년 | | 2020년 | |
| | 명 | 비율 (%) | 명 | 비율 (%) | 명 | 비율 (%) | 명 | 비율 (%) |
| 전체 (15세 이상) | 42,975,000 | 100.0 | 44,756,000 | 100.0 | 2,444,194 | 100.0 | 2,562,873 | 100.0 |
| 중졸 이하 | 11,422,000 | 26.6 | 10,377,000 | 23.2 | 1,470,735 | 60.2 | 1,453,052 | 56.7 |
| 고졸 | 16,330,000 | 38.0 | 16,916,000 | 37.8 | 672,425 | 27.5 | 769,660 | 30.0 |
| 대졸 이상 | 15,223,000 | 35.4 | 17,463,000 | 39.0 | 301,032 | 12.3 | 340,160 | 13.3 |

주 : *대졸 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장애통계연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타 장애 유형보다 지적장애인(52.8%)과 자폐성 장애인(15.5%)의 비율이 68.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원 또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장애인을 제외한 기타 장애인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11-4>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 구분 | 2015 | | 2017 | | 2019 | | 2021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지체장애 | 11,134 | 12.6 | 10,777 | 12.1 | 10,200 | 11.0 | 9,695 | 9.9 |
| 시각장애 | 2,088 | 2.4 | 2,026 | 2.3 | 1,937 | 2.1 | 1,826 | 1.9 |
| 청각장애 | 3,491 | 4.0 | 3,358 | 3.8 | 3,225 | 3.5 | 3,026 | 3.1 |
| 의사소통장애 | 2,045 | 2.3 | 2,038 | 2.3 | 2,204 | 2.4 | 2,450 | 2.5 |
| 지적장애 | 47,716 | 54.2 | 48,084 | 53.8 | 49,624 | 53.4 | 51,788 | 52.8 |
| 자폐성장애 | 10,045 | 11.4 | 11,422 | 12.8 | 13,105 | 14.1 | 15,215 | 15.5 |
| 정서·행동장애 | 2,530 | 2.9 | 2,269 | 2.5 | 2,269 | 2.3 | 1,874 | 1.9 |
| 학습장애 | 2,770 | 3.1 | 2,040 | 2.3 | 1,409 | 1.5 | 1,114 | 1.1 |
| 건강장애 | 1,935 | 2.2 | 1,626 | 1.8 | 1,763 | 1.9 | 1,799 | 1.8 |
| 발달지체 | 4,313 | 4.9 | 5,713 | 6.4 | 7,309 | 7.9 | 9,367 | 9.5 |
| 전체 | 88,067 | 100.0 | 89,353 | 100.0 | 92,958 | 100.0 | 98,154 | 100.0 |

출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졸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진학률은 54.5%, 취업률은 10.7%로 나타났다. 반면 비진학 및 비취업자 수의 비율이 34.8%로 조사되었다. 특수학교 전공과 이후 졸업자의 경우 진학률은 1.3%, 취업률은 42.4%에 그쳐 비진학 및 비취업자 수의 비율이 56.3%로 조사되어 과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5>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 현황

| 구분 | | 졸업자 수 | | 진학* | | 취업 | | 비진학(비취업) |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2,108 | 100.0 | 1,235 | 58.6 | 61 | 2.9 | 812 | 38.5 |
| | 특수학급 | 3,614 | 100.0 | 1,789 | 49.5 | 617 | 17.1 | 1,208 | 33.4 |
| | 일반학급 | 1,105 | 100.0 | 696 | 63.0 | 54 | 4.9 | 355 | 32.1 |
| | 계 | 6,827 | 100.0 | 3,720 | 54.5 | 732 | 10.7 | 2,375 | 34.8 |
| 전공과 | 특수학교 | 2,378 | 100.0 | 31 | 1.3 | 1009 | 42.4 | 1,338 | 56.3 |

주 : *진학은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모두 포함
출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시도별 운영 현황과 운영 주체는 교육청 인가등록이 59개 시설, 지자체 지정위탁이 18개 시설, 총 7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5개, 법인은 46개, 개인은 26개로 나타났는데 중복은 2개 시설 모두가 개인이 운영 주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6>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시도별 운영 현황 및 운영 주체

| 구분 | 운영 현황 | | | 운영 주체 | | |
|----|--------------|--------------|-------------|-----------|----|----|
| | 전체기관 시설 수 | 교육청 인가·등록 | 지자체 지정위탁 | 국가 지자체 | 법인 | 개인 |
| 서울 | 18 | 4 | 14 | 3 | 14 | 1 |
| 부산 | 1 | 1 | - | - | - | 1 |
| 대구 | 2 | 1 | 1 | - | 2 | - |
| 인천 | 6 | 5 | 1 | - | 3 | 3 |
| 광주 | 4 | 4 | - | - | 4 | - |
| 대전 | 3 | 3 | - | - | 2 | 1 |
| 울산 | 4 | 3 | 1 | 1 | 1 | 2 |
| 세종 | 1 | 1 | - | - | 1 | - |
| 경기 | 17 | 17 | - | - | 6 | 11 |
| 강원 | 2 | 2 | - | - | - | 2 |

| 구분 | 운영 현황 | | | 운영 주체 | | |
|----|--------------|--------------|-------------|-----------|----|----|
| | 전체기관 시설 수 | 교육청 인가·등록 | 지자체 지정위탁 | 국가 지자체 | 법인 | 개인 |
| 총복 | 3 | 3 | - | - | - | 3 |
| 충남 | 1 | 1 | - | - | 1 | - |
| 전북 | 2 | 1 | 1 | 1 | 1 | - |
| 전남 | 2 | 2 | - | - | 1 | 1 |
| 경북 | 2 | 2 | - | - | 2 | - |
| 경남 | 9 | 9 | - | - | 8 | 1 |
| 제주 | 1 | 1 | - | - | - | 1 |
| 전체 | 77 | 59 | 18 | 5 | 46 | 26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2020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집 중 충북 현황은 21년 7월 31일자 현황을 반영함.

충청북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예산 지원 현황은 다음 <표 II-7>과 같다. 다사리학교와 평생열린학교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며 지원예산이 증가하였고, 2021년까지 유지되었으며, 2022년 예산편성(안)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2020년 7월 31일에 신규 등록된 해뜨는학교의 지원예산 역시 2021년 50,000천 원 대비 2022년 55,000천 원(안)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7> 충청북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현황

| 시설명 | 지원예산(단위 : 천 원) | | | | 2022 예산편성(안) |
|--------|----------------|--------|--------|--------|-----------------|
| | 2018 | 2019 | 2020 | 2021 | |
| 다사리학교 | 60,000 | 70,000 | 70,000 | 70,000 | 90,000 |
| 평생열린학교 | 37,380 | 50,000 | 50,000 | 50,000 | 55,000 |
| 해뜨는학교 | | | | 50,000 | 55,000 |

출처 : 이상욱 충청북도의원 내부자료(202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시설과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인가등록 56개 시설에서 646개의 프로그램을, 지정·위탁 18개 시설에서 4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총 77개의 평생교육시설 중 충남, 부산, 세종, 제주가 각각 1개의 시설을 운영하였고 프로그램은 20개 이하가 진행되었으며, 다음으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대구가 각각 2개의 시설을 운영하였는데 충북은 2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학습자 수를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시설 교육청 인가·등록 시설에 총 1,939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고, 지자체 지정·위탁 18개 시설에는 총 559명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전체 2개의 시설에 남자 43명, 여자 43명 모두 86명의 학습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관 수,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 현황

| 구분 | | 전체 시설 수 | 전체 프로그램 수 | 학습자 수 | | |
|------------|-----------|------------|--------------|-------|-------|-------|
| | | | | 전체 | 남 | 여 |
| 평생 교육시설 | 교육청 인가·등록 | 59 | 646 | 1939 | 1026 | 913 |
| | 지자체 지정·위탁 | 18 | 414 | 559 | 356 | 194 |
| 시도 | 서울 | 18 | 371 | 604 | 372 | 232 |
| | 부산 | 1 | 8 | 14 | 10 | 4 |
| | 대구 | 2 | 39 | 76 | 55 | 21 |
| | 인천 | 6 | 92 | 186 | 107 | 79 |
| | 광주 | 4 | 50 | 82 | 29 | 53 |
| | 대전 | 3 | 21 | 89 | 65 | 24 |
| | 울산 | 4 | 42 | 90 | 42 | 48 |
| | 세종 | 1 | 5 | 35 | 21 | 14 |
| | 경기 | 17 | 200 | 614 | 320 | 294 |
| | 강원 | 2 | 17 | 57 | 30 | 27 |
| | 충북 | 2 | 27 | 86 | 43 | 43 |
| | 충남 | 1 | 11 | 33 | 15 | 18 |
| | 전북 | 2 | 56 | 171 | 93 | 78 |
| | 전남 | 2 | 22 | 24 | 12 | 12 |
| | 경북 | 2 | 9 | 59 | 43 | 16 |
| | 경남 | 9 | 70 | 171 | 68 | 103 |
| 제주 | 1 | 20 | 107 | 66 | 41 | |
| 전체 | | 77 | 1,060 | 2,498 | 1,391 | 1,107 |

주1 :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제시된 6가지 주제(학력보완,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주2 : 충청북도 신규 등록된 시설(헤뜨는학교)의 현황은 반영되지 않음.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2020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집.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 유형별 학습자 현황은 참여자 전체 2,498명 중 지적장애 참여자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각각 432명, 384명, 299명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참여자가 전체 2,498명 중 1,456명으로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참가자 현황(전체 88,067명, 지적장애 51,788명, 52.8%, 자폐성 장애 15,215명, 15.5%)과 같이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시도별 충북의 장애 유형별 학습자 현황은 전체장애인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참여자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II-9>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 유형별 학습자 현황

| 구분 | | 전체 인원수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청각 장애 | 시각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기타 장애 |
|----------------|--------------|-----------|----------|-----------|----------|----------|----------|-----------|----------|
| 평생 교육 시설 | 교육청 인가·등록 | 1,939 | 430 | 359 | 41 | 50 | 790 | 139 | 130 |
| | 지자체 지정·위탁 | 559 | 2 | 25 | 2 | 0 | 367 | 160 | 3 |
| 시도 | 서울 | 604 | 42 | 89 | 2 | 2 | 306 | 143 | 20 |
| | 부산 | 14 | 0 | 3 | 0 | 0 | 8 | 3 | 0 |
| | 대구 | 76 | 8 | 5 | 0 | 1 | 50 | 3 | 9 |
| | 인천 | 186 | 12 | 35 | 1 | 3 | 88 | 38 | 9 |
| | 광주 | 82 | 16 | 11 | 4 | 1 | 47 | 1 | 2 |
| | 대전 | 89 | 13 | 10 | 3 | 0 | 56 | 1 | 6 |
| | 울산 | 90 | 9 | 12 | 2 | 0 | 49 | 8 | 10 |
| | 세종 | 35 | 15 | 2 | 3 | 2 | 8 | 5 | 0 |
| | 경기 | 614 | 130 | 121 | 17 | 22 | 243 | 37 | 44 |
| | 강원 | 57 | 23 | 3 | 0 | 1 | 22 | 3 | 5 |
| | 충북 | 86 | 35 | 9 | 3 | 0 | 30 | 4 | 5 |
| | 충남 | 33 | 15 | 9 | 0 | 0 | 8 | 1 | 0 |
| | 전북 | 171 | 16 | 14 | 3 | 3 | 97 | 38 | 0 |
| | 전남 | 24 | 3 | 2 | 0 | 0 | 15 | 3 | 1 |
| | 경북 | 59 | 20 | 4 | 0 | 0 | 31 | 4 | 0 |
| | 경남 | 171 | 49 | 27 | 4 | 13 | 57 | 1 | 20 |
| 제주 | 107 | 26 | 28 | 1 | 2 | 42 | 6 | 2 | |
| 전체 | | 2,498 | 432 | 384 | 43 | 50 | 1,157 | 299 | 133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2020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집.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가 50,719명으로 거주시설과 직업 재활시설 총 15,673명보다 많은 특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 시설과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순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으며, 지적장애인시설과 거주시설의 학습 참여자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주간 보호시설이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의 프로그램 및 참여 학습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도별 충북은 39개의 시설에서 73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665명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군별 시설 수를 살펴보면 충북의 경우 세종, 울산, 대전, 제주 다음으로 시설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주체의 경우 전체 1,046개의 시설 중 국가 또는 개인보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949개의 시설로 대부분 국가 직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 운영 주체 현황

| 구분 | 전체 시설 수 | 전체 프로그램 수 | 전체 학습자 수 | 운영 주체 | | | |
|-------------|----------|-----------|----------|--------|----|-----|----|
| | | | | 국가 | 법인 | 개인 | |
| 장애인 복지 시설 | 거주시설 | 119 | 1,264 | 2,694 | 8 | 98 | 13 |
| | 지역사회재활시설 | 459 | 7,281 | 50,719 | 24 | 409 | 26 |
| | 직업재활시설 | 468 | 8,699 | 12,979 | 22 | 442 | 4 |
| 장애인 복지 시설 | 지체장애인시설 | 3 | 79 | 225 | - | 3 | - |
| | 시각장애인시설 | 1 | 8 | 29 | 1 | - | - |
| | 청각장애인시설 | 2 | 10 | 25 | - | 2 | - |
| | 지적장애인시설 | 39 | 466 | 1,237 | 1 | 33 | 5 |
| | 거주시설 | 24 | 284 | 843 | 4 | 20 | - |
| | 단기거주시설 | 14 | 131 | 173 | - | 13 | 1 |
| | 공동생활가정 | 36 | 286 | 162 | 2 | 27 | 7 |
| 지역 사회 재활 시설 | 장애인복지관 | 201 | 3,824 | 44,914 | 19 | 182 | - |
| | 주간보호시설 | 216 | 3,293 | 3,718 | 4 | 187 | 25 |
| | 장애인체육관 | 3 | 24 | 400 | 1 | 2 | - |
| | 수어통역센터 | 27 | 74 | 598 | - | 26 | 1 |
| | 생활이동지원센터 | 7 | 32 | 149 | - | 7 | - |
| | 점자도서관 | 5 | 34 | 940 | - | 5 | - |
| 직업 재활 시설 | 근로사업장 | 27 | 216 | 1,095 | 1 | 26 | - |
| | 보호작업장 | 423 | 7,877 | 11,520 | 19 | 401 | 3 |
| | 직업적응훈련시설 | 18 | 606 | 364 | 2 | 15 | 1 |
| 시도 | 서울 | 163 | 2,283 | 16,423 | 12 | 147 | 4 |
| | 부산 | 80 | 835 | 3,667 | - | 75 | 5 |
| | 대구 | 57 | 684 | 4,654 | 1 | 55 | 1 |
| | 인천 | 60 | 839 | 2,685 | 2 | 58 | - |
| | 광주 | 50 | 554 | 1,665 | 4 | 36 | 10 |
| | 대전 | 34 | 347 | 1,456 | 1 | 25 | 8 |
| | 울산 | 30 | 344 | 1,105 | 1 | 27 | 2 |
| | 세종 | 7 | 96 | 297 | - | 6 | 1 |
| | 경기 | 142 | 2,407 | 5,966 | 9 | 129 | 4 |
| | 강원 | 43 | 345 | 1,441 | 1 | 42 | - |
| | 충북 | 39 | 736 | 2,665 | 2 | 36 | 1 |
| | 충남 | 44 | 4,146 | 5,599 | 3 | 41 | - |
| | 전북 | 48 | 577 | 3,939 | 2 | 45 | 1 |
| | 전남 | 54 | 554 | 2,285 | 4 | 46 | 4 |
| | 경북 | 81 | 1,233 | 7,762 | 5 | 76 | - |
| | 경남 | 77 | 843 | 3,166 | 4 | 71 | 2 |
| | 제주 | 37 | 421 | 1,617 | 3 | 34 | - |

| 구분 | 전체 시설 수 | 전체 프로그램 수 | 전체 학습자 수 | 운영 주체 | | |
|----|------------|--------------|-------------|-------|-----|----|
| | | | | 국가 | 법인 | 개인 |
| 전체 | 1,046 | 17,244 | 66,392 | 54 | 949 | 43 |

주 :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제시된 6가지 주제(학력보완,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2020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집.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 지원 현황이다.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며, 총 12개 사업의 투입예산은 2022년 기준 853,097천 원임. 이 중 장애인교육비 지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3곳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I-1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 유형별 학습자 현황

| 구분 | 2022년 사업예산(단위 : 천 원) | | | | 비고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12개 사업 | 853,097 | 113,035 | 331,809 | 405,253 | 3,000 |
| 1 장애인교육비 지원 | 160,000 | | 64,000 | 96,000 | 노장과 |
| 2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 160,000 | | 48,000 | 112,000 | 노장과 |
| 3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 270,000 | | 108,000 | 162,000 | 노장과 |
| 4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132,907 | 93,035 | 14,619 | 25,253 | 노장과 |
| 5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 9,720 | | 9,720 | | 노장과 |
| 6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40,000 | 20,000 | 10,000 | 10,000 | 여성가족 |
| 7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연수 | 10,000 | | 10,000 | | 진흥원 |
| 8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및 실태조사 | 15,000 | | 15,000 | | 진흥원 |
| 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 15,000 | | 15,000 | | 진흥원 |
| 10 청년 발달장애인 특화교육 사업 | 10,000 | | 10,000 | | 진흥원 |
| 1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 12,000 | | 9,000 | | 기타 3,000 노장과 |
| 12 수어교실 운영 | 18,470 | | 18,470 | | 노장과 |

출처 : 이상옥 충청북도의원 내부자료(202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충청북도 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사업은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담당한다. 총 7개의 사업으로 2022년 기준 투입 예산은 5,302,959천 원이고, 예산 대부분(5,282,959천 원)이 자체 예산사업이다. 사업 중 특수교육운영의 2022년 사업 예산은 108,380천 원이고, 특수직업교육운영의 사업예산은 148,292천 원으로 확인된다.

<표 II-12>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 구분 | 2022년 사업예산(단위 : 천 원) | | | | | 비고 |
|---|----------------------|-----------|--------|----|----|----|
| | 계 | 자체 | 특교 | 국교 | 기타 | |
| 7개 사업 | 5,302,959 | 5,282,959 | 20,000 | - | - | |
| 1 특수교육운영 | 108,380 | 88,380 | 20,000 | - | - | |
| 2 특수직업교육운영 | 148,292 | 148,292 | - | - | - | |
| 특수교육대회지원 : 3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가능경기대회 | 8,000 | 8,000 | - | - | - | |
| 4 특수교육봉사활동지원 | 2,177,000 | 2,177,000 | - | - | - | |
| 5 특수교육사회복무요원인건비 | 680,527 | 680,527 | - | - | - | |
| 6 특수교육방과후과정지원 | 104,000 | 104,000 | - | - | - | |
| 7 특수학교(급)현대화 | 2,076,760 | 2,076,760 | - | - | - | |

출처 : 이상욱 충청북도의원 내부자료(202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의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개최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였다(김미아, 2017).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었다가 1999년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평생교육법」으로 법의 내용이 모두 개정되었다. 이후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제를 보완하여 2007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학습권을 설정법으로 명문화하였다. 이와 함께 동일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였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동일법 제33조와 제34조는 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 변경되어 평생교육 기관과 평생교육 진흥원이 평생교육 과정의 설치 운영 및 기회 확대 방안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률화되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것이다(김미아, 2017).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비로소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복지 지원 및 서비스 제26조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제화되어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의 참여기회가 마련되었다.

<표 II-13>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

| 법령 | 관련 조항 |
|--|---|
|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
| 교육기본법 | 제1장 총칙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 제1장 총칙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장 고등교육 제33조(평생교육법 시행 2017.5.30.) |
| 장애인복지법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20조(교육)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별금지 제2절 교육(제13조~14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장 총칙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의 대폭 개정과 - 시행(2017.5.30.) | 제1장 제2조(정의) 제1장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제9조(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제12조(시도 평생교육 협의회) 제2장 제14조(시군 자치구 평생교육 협의회) 제2장 제19조의2(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제2장 제20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장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장 제11조의2(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제3장 제12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3장 제12조의3(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제2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 제3장 제19조(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제3장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3장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제3장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출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약칭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인의 평생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이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평생교육 기관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문자해독 교육에만 머물렀으며, 법률은 특수교육 소관이고 시행 주체는 평생교육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조창빈·김두영, 2016).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해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교육부에서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계획을 포함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를 설치 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 개선 및 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차재경·박영근·이재호, 2021).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에서 평생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을 위해 초·중등교육 지원,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평생교육 지원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분야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김정숙, 2015). 이후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에서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의 하나로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으로는 ①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율을 향상하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 ② 공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학력보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성인장애인 대상 문해 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제시하였다(김주영, 2018).

그러나 2002년부터 3차에 걸쳐 수립된 기본계획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들은 장애인을 평생교육 분야의 취약계층에 포함은 하였으나, 세부 정책에는 한결같이 장애인이 빠져 있어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2018~2022)에서는 3차 기본계획까지와는 달리 「평생교육법」 제9조 제2항 제5호와 제6호로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법률에 신설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모호하게 포함되었던 장애인을 학습자 특성을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하여 이 전과 달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표 II-14>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
|--|---|
| 1.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학습비 부담 경감 - 우수 온라인 프로그램, 소외계층 맞춤형 강좌 등 발굴 바우처 지원 시 연계 |
|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방안(시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지원 ○ 지원방식: 바우처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자 바우처 발급 → 희망 강좌 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 희망 유형에 바우처 지원 신청 및 연간 교육계획 입력 ② 선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 지원여부 확정 ③ 발급: 전자 바우처를 발급받아 교육기관에 희망 강좌 수강 신청 ④ 학습관리: 바우처 지원 시스템에 교육 및 학습결과 입력 | |
|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구축: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시·도간 분담체계 구축 - 우수 온라인 프로그램, 소외계층 맞춤형 강좌 등 발굴 바우처 지원 시 연계 |
| 역할 분담체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행정기구, 전담·지원기구, 심의·협의 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 ○ 시·도: 지역 실정을 감안한 '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 수립,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 활성화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평생교육 현황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역할 분담 | |
| 지역 관련 기관의 역할(예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정·운영 및 등록 관리 ○ 각급 학교장, 평생교육 기관: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운영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실적 평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행계획의 추진 정도를 매년 평가하여 평생교육 진흥위원회에 보고 | |
| 3.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제도 접근성 제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등에 시청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 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보이스아이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서비스 등 - 기존 평생교육 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운영 프로그램 수: 2018년 650개 → 2022년 1,130개 |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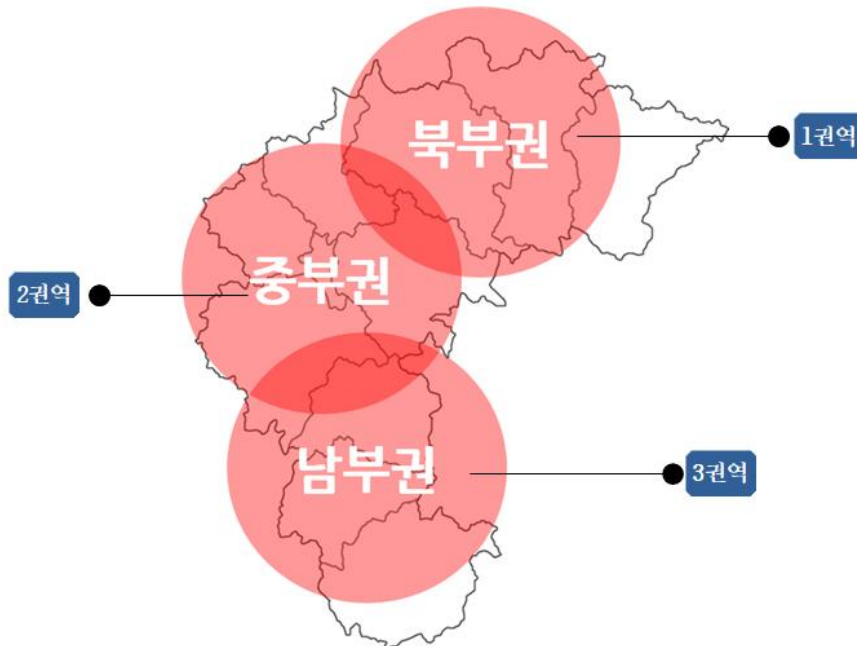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K-MOOC 등에 시청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 *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력보완 및 장애 유형 고려 맞춤형 프로그램 등 확대
 - 등록 장애인 250여만 명 중 140여만 명(약 60%)이 중졸 이하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
- 장애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방송 통신 중·고등학교 교육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력 인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2018년 학력인정 맞춤형 프로그램(4종: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중도·중복) 개발 연구 → 2019년 시범 운영 → 2020년부터 전국 운영

출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4.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과정

충청북도 12개소 장애인복지관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총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조정, 협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림 II-1> 권역별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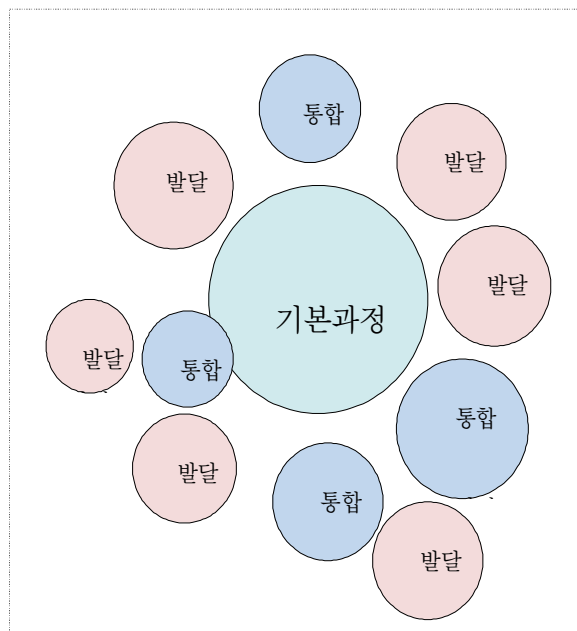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

신의 의사 표현이나 결정권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는 기존의 전달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중복형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그 목적은 첫째,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향상을 꾀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넷째, 당사자 입장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영되었으며, 발달장애인 실인원 240명, 연인원 144,000명에 대해 사회적응능력향상, 신체기능향상, 여가활동 능력향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본과정과 발달과정, 통합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어, 기초적 생활지원과 자기결정권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권역 특화 프로그램 2개 이상 진행, 타 장애 유형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그림 II-2> 중복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본모형



Ⅲ.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분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분석 대상은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들로 시간적 범위는 2020년과 2021년에 해당하며, 예·결산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포함하였다. 분석틀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결산, 인력, 협력 연계기관으로 구성된다.

1) 프로그램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6진 분류(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체육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를 주요 기준으로 나누었다. 2020년 기준,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총 236건으로, 가장 많이 수행한 지역은 청주시가 2개 복지관에서 57건을 수행하였다. 청주시에 이어 영동군 44건, 충주시와 증평군 22건, 괴산군 20건, 보은군 17건, 음성군 15건, 진천군 13건, 단양군 11건, 옥천군 9건, 제천시 7건이 뒤를 이었다.

6진 분류를 기준으로 2020년 가장 많이 수행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57.6%(136건)의 문화체육예술교육으로 이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인문교양교육 17.8%(42건)로 뒤를 이었고, 직업능력향상교육 10.6%(25건), 시민참여교육 7.6%(18건), 학력보완교육 3.0%(7건),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3.4%(8건)의 순이었다.

<표 III-1> 2020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프로그램 분류

| 구분 | 전체 | | 학력보완교육 | |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 | 직업능력 향상교육 | | 인문교양교육 | | 문화체육 예술교육 | | 시민참여교육 |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전체 | 236 | 100.0 | 7 | 3.0 | 8 | 3.4 | 25 | 10.6 | 42 | 17.8 | 136 | 57.6 | 18 | 7.6 |
| 청주시 | 57 | 100.0 | 2 | 3.5 | 2 | 3.5 | 6 | 10.5 | 12 | 21.1 | 34 | 59.6 | 1 | 1.8 |

| 구분 | 전체 | | 학력보완교육 | |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 | 직업능력 향상교육 | | 인문교양교육 | | 문화체육 예술교육 | | 시민참여교육 |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충주시 | 22 | 100.0 | 1 | 4.5 | | | 1 | 4.5 | 5 | 22.7 | 10 | 45.5 | 5 | 22.7 |
| 제천시 | 7 | 100.0 | | | | | | | 5 | 71.4 | 2 | 28.6 | | |
| 보은군 | 17 | 100.0 | 1 | 5.9 | 1 | 5.9 | 3 | 17.6 | 2 | 11.8 | 9 | 52.9 | 1 | 5.9 |
| 옥천군 | 8 | 100.0 | | | 1 | 12.5 | 1 | 12.5 | 2 | 25.0 | 3 | 37.5 | 1 | 12.5 |
| 영동군 | 44 | 100.0 | | | 2 | 4.5 | 8 | 18.2 | 2 | 4.5 | 30 | 68.2 | 2 | 4.5 |
| 증평군 | 22 | 100.0 | 1 | 4.5 | 1 | 4.5 | 4 | 18.2 | 5 | 22.7 | 10 | 45.5 | 1 | 4.5 |
| 진천군 | 13 | 100.0 | | | 1 | 7.7 | | | 2 | 15.4 | 10 | 76.9 | | |
| 괴산군 | 20 | 100.0 | 2 | 10.0 | | | 2 | 10.0 | 3 | 15.0 | 9 | 45.0 | 4 | 20.0 |
| 음성군 | 15 | 100.0 | | | | | | | 1 | 6.7 | 11 | 73.3 | 3 | 20.0 |
| 단양군 | 11 | 100.0 | | | | | | | 3 | 27.3 | 8 | 72.7 | | |

주1) 청주시는 총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자료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1개소의 현황 자료임.

2021년 예정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총 269건으로, 가장 많이 수행한 지역은 청주시로 64건을 수행하였다. 청주시에 이어 영동군 41건, 증평군 30건, 충주시 26건, 음성군 22건, 단양군 22건, 괴산군 20건, 진천군 15건, 보은군 14건, 옥천군 9건, 제천시 7건이 뒤를 이었다.

6진 분류를 기준으로 2021년 가장 많이 수행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58.7%(158건)의 문화체육예술교육으로 과반수에 해당한다. 인문교양교육 23.0%(62건), 직업능력향상교육 8.2%(22건), 시민참여교육 4.8%(13건), 학력보완교육 2.2%(6건),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3.0%(8건)의 순이었다.

<표 III-2> 2021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프로그램 분류

| 구분 | 전체 | | 학력보완교육 | |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 | 직업능력 향상교육 | | 인문교양교육 | | 문화체육 예술교육 | | 시민참여교육 |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전체 | 269 | 100.0 | 6 | 2.2 | 8 | 3.0 | 22 | 8.2 | 62 | 23.0 | 158 | 58.7 | 13 | 4.8 |
| 청주시 | 64 | 100.0 | 2 | 3.1 | 2 | 3.1 | 5 | 7.8 | 19 | 29.7 | 35 | 54.7 | 1 | 1.6 |
| 충주시 | 26 | 100.0 | 1 | 3.8 | | | 3 | 11.5 | 3 | 11.5 | 18 | 69.2 | 1 | 3.8 |

| 구분 | 전체 | | 학력보완교육 | |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 | 직업능력 향상교육 | | 인문교양교육 | | 문화체육 예술교육 | | 시민참여교육 | |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제천시 | 7 | 100.0 | | | | | | | 5 | 71.4 | 2 | 28.6 | | | |
| 보은군 | 14 | 100.0 | | | 1 | 7.1 | | | 3 | 21.4 | 10 | 71.4 | | | |
| 옥천군 | 8 | 100.0 | | | 1 | 12.5 | 1 | 12.5 | 2 | 25.0 | 3 | 37.5 | 1 | 12.5 | |
| 영동군 | 41 | 100.0 | | | 2 | 4.9 | 5 | 12.2 | 2 | 4.9 | 30 | 73.2 | 2 | 4.9 | |
| 증평군 | 30 | 100.0 | 1 | 3.3 | 1 | 3.3 | 5 | 16.7 | 8 | 26.7 | 14 | 46.7 | 1 | 3.3 | |
| 진천군 | 15 | 100.0 | | | 1 | 6.7 | | | 2 | 13.3 | 12 | 80.0 | | | |
| 괴산군 | 20 | 100.0 | 2 | 10.0 | | | | 2 | 10.0 | 3 | 15.0 | 9 | 45.0 | 4 | 20.0 |
| 음성군 | 22 | 100.0 | | | | | | | 5 | 22.7 | 14 | 63.6 | 3 | 13.6 | |
| 단양군 | 22 | 100.0 | | | | | 1 | | 10 | 45.5 | 11 | 50.0 | | | |

주1) 청주시는 총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자료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1개소의 현황 자료임.

아래 <표 III-3>은 첫째, 모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가정할 시, 프로그램 1건 당 참여하게 되는 발달장애인의 평균 인원과 둘째, 2020년 발달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1인당 개설된 평균 프로그램 건수를 보여준다.

첫째, 2020년에 수행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총 236건을 기준으로 모든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시, 1건당 평균 48.5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결과를 살펴보면, 제천시가 1건당 평균 156.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고, 영동군이 평균 9.0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참여하게 된다. 영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중 1건당 평균 인원이 30명 이하인 지역은 증평군 13.0명, 보은군 18.3명, 단양군 22.0명으로 확인된다. 행정구역상 시(市) 단위인 청주시와 충주시는 각각 평균 88.7명, 63.8명이 참여하게 된다.

2021년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총 269건으로 모든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시, 1건당 평균 42.5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시·군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과 마찬가지로 제천시가 평균 배정 인원이 156.9명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이 평균 9.5명으로 가장 적고, 2020년에 가장 적은 평균 배정 인원을 보인 영동군은 평균 9.7명으로 확인된다. 증평군과 영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중 1건당 평균 인원이 30명 이하인 지역은 단양군 평균 11명, 괴산군 평균 20.8명,

보은군 22.2명이다. 행정구역상 시(市) 단위인 청주시와 충주시는 각각 평균 79.0명, 54.0명이 참여하게 된다.

둘째, 2020년 발달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1인당 개설된 프로그램의 평균 건수를 살펴보면, 평균 0.01건에서 0.10건의 분포를 보인다. 이는 평균 0.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수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선택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위도 매우 좁은 현실임을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 구분 | 년도 | 발달장애인 수 | | | 참여 현황 | | |
|-----|------|---------|-----|--------|-------------|--------------------------------|------------------------|
| | | 지적 | 자폐 | 전체(a) | 총 프로그램 수(b) | 모든 발달장애인 참여 시 프로그램당 평균 인원(a/b) | 발달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건수(b/a) |
| 전체 | 2020 | 10,656 | 781 | 11,437 | 236 | 48.5 | 0.02 |
| | 2021 | | | | 269 | 42.5 | 0.02 |
| 청주시 | 2020 | 4,619 | 434 | 5,053 | 57 | 88.7 | 0.01 |
| | 2021 | | | | 64 | 79.0 | 0.01 |
| 충주시 | 2020 | 1,285 | 119 | 1,404 | 22 | 63.8 | 0.02 |
| | 2021 | | | | 26 | 54.0 | 0.02 |
| 제천시 | 2020 | 1,033 | 65 | 1,098 | 7 | 156.9 | 0.01 |
| | 2021 | | | | 7 | 156.9 | 0.01 |
| 보은군 | 2020 | 300 | 11 | 311 | 17 | 18.3 | 0.05 |
| | 2021 | | | | 14 | 22.2 | 0.05 |
| 옥천군 | 2020 | 558 | 23 | 581 | 8 | 72.6 | 0.01 |
| | 2021 | | | | 8 | 72.6 | 0.01 |
| 영동군 | 2020 | 375 | 21 | 396 | 44 | 9.0 | 0.11 |
| | 2021 | | | | 41 | 9.7 | 0.10 |
| 증평군 | 2020 | 267 | 19 | 286 | 22 | 13.0 | 0.08 |
| | 2021 | | | | 30 | 9.5 | 0.10 |
| 진천군 | 2020 | 461 | 34 | 495 | 13 | 38.1 | 0.03 |
| | 2021 | | | | 15 | 33.0 | 0.03 |
| 괴산군 | 2020 | 406 | 9 | 415 | 20 | 20.8 | 0.05 |
| | 2021 | | | | 20 | 20.8 | 0.05 |
| 음성군 | 2020 | 1,117 | 39 | 1,156 | 15 | 77.1 | 0.01 |
| | 2021 | | | | 22 | 52.6 | 0.02 |
| 단양군 | 2020 | 235 | 7 | 242 | 11 | 22.0 | 0.05 |
| | 2021 | | | | 22 | 11.0 | 0.09 |

| 구분 | 년도 | 발달장애인 수 | | | 참여 현황 | | |
|----|----|---------|----|-------|-------------|--------------------------------|------------------------|
| | | 지적 | 자폐 | 전체(a) | 총 프로그램 수(b) | 모든 발달장애인 참여 시 프로그램당 평균 인원(a/b) | 발달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건수(b/a) |

주1) 2021년 총 프로그램 수와 총 참여인원은 2021.1.1.~8.31. 기준임.

주2) 청주시는 총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자료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1개소의 현황 자료임.

주3) 발달장애인 수는 2020년 말 기준(행정안전부, 2021)임.

다음 <표 III-4>는 각 시와 군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인문교양교육에는 정보화교육(디지털 격차 해소), 수어 교육, 홈 카페, 건강 강좌 등이 있으며 문화체육예술교육에는 스포츠, 노래, 미술, 연극, 서예, 생활 도자기, 뜨개질 등이 확인된다. 시민참여교육은 자기관리교육, 장애인 인권 자기주장, 성교육, 일상생활, 자립훈련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고, 학력보완교육은 검정고시반, 방과 후 교실 등이 확인된다.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으로 주로 한글 교육, 기초학습, 성인문해 교육이 제공되고 있었고, 마지막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는 제과제빵 자격과정, 바리스타 과정, 중증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임가공 직업체험 등이 있었다.

<표 III-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영역별 프로그램

| | |
|---|---|
| <p>학력보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초등, 중등 - 학력 보완 교육 - 방과 후 교실 - 방학 교실 | <p>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교육 - 수학 교육 - 성인문해 교육 - 기초학습 |
| <p>직업능력향상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바리스타) - 자립농업 - 제과제빵 자격과정 - 중증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 직업유지 - 적응훈련 (임가공) (직업체험) | <p>인문교양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교육 - 홈 카페 - 이·혈 치료 - 지역 역사교육 - 재활대학 - 수어 교육 - 사회생활 적응훈련 - 문화 여가 - 건강 강좌 |
| <p>문화체육예술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뜨개질 - 노래 | <p>시민참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관리교육 - 목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 연극 - 사진 - 스포츠 프로그램(라탄, 달크로즈, 한궁, 탁구 등) - 웃음 레크리에이션 - 서예 - 생활 도자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 자기표현 교실 - 봉사활동 - 일상생활 자립훈련 |
|---|---|

2) 사업 예·결산

<표 III-5>는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2019년 대비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의 사업 건수가 감소한 곳은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네 곳으로, 음성군의 경우 2019년 41건에서 2020년 15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사업 건수의 감소의 주된 배경을 코로나19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2019년 이후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종료로 인한 축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은 2019년 대비 2020년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수와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다.

예·결산의 경우, 제천시와 괴산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2021년 예산은 2019년 결산액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액과 예산액을 단순 비교하기엔 다소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2021년은 예산액이라 결산에는 더 증가 혹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 비교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액이 증가한 현상은 프로그램 수 혹은 회원의 증가, 프로그램 구성상의 변동 등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참여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2019년 결산액 대비 2021년 예산액의 증가 정도가 가장 큰 곳은 청주시장애인복지관으로 150,041천 원이 증가하였고, 가장 적은 곳은 혜원장애인복지관의 3,486천 원이다.

다만, 아래 <표 III-5>는 일부 지역의 경우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부모교육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이다.

<표 III-5>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예·결산

| 구분 | 연도 | 사업 현황 | | 예산 및 결산 (단위 : 천 원) | | | | |
|-------------------|--------|--------|--------|--------------------|---------|--------|--------|---------|
| | | 총 사업 수 | 총 참여인원 | 소계 | 도비 | 시·군비 | 후원금 | 자부담 |
| 청주시 장애인 복지관 | 2019 결 | 37 | 349 | 79,178 | 30,000 | 45,653 | 3,525 | 4,976 |
| | 2020 결 | 43 | 361 | 100,380 | 93,480 | 6,900 | | |
| | 2021 예 | 53 | 279 | 229,219 | 198,051 | 26,192 | | |
| 혜원 장애인 복지관 | 2019 결 | 미상 | 미상 | 21,993 | 6,598 | 15,395 | 14,527 | 80 |
| | 2020 결 | 미상 | 미상 | 6,800 | | 6,800 | | |
| | 2021 예 | 미상 | 미상 | 25,478 | 7,643 | 17,835 | | |
| 충주시 | 2019 결 | 34 | 311 | 17,681 | 3,154 | | 4,320 | 80 |
| | 2020 결 | 42 | 786 | 20,000 | 6,000 | 14,000 | | |
| | 2021 예 | 49 | 445 | 24,400 | 6,000 | 14,000 | | |
| 제천시 | 2019 결 | 2 | 31 | 5,569 | | 1,000 | 5,196 | 3,280 |
| | 2020 결 | 7 | 2,676 | 6,196 | | 1,000 | | |
| | 2021 예 | 6 | 3,802 | 3,280 | | | | |
| 보은군 | 2019 결 | 16 | 111 | 6,000 | 6,000 | | 19,000 | *15,531 |
| | 2020 결 | 20 | 193 | 19,000 | | | | |
| | 2021 예 | 16 | 152 | | | | | |
| 옥천군 | 2019 결 | 6 | 6 | 2,200 | | 2,200 | 10,000 | 300 |
| | 2020 결 | 8 | 9 | 10,300 | | | | |
| | 2021 예 | 8 | 17 | 15,950 | | 15,500 | | |
| 영동군 | 2019 결 | 36 | 131 | 32,545 | | 14,120 | 13,860 | 4,565 |
| | 2020 결 | 44 | 141 | 51,653 | | 34,890 | 6,003 | 10,760 |
| | 2021 예 | 41 | 160 | 50,147 | | 27,737 | 12,500 | 9,910 |
| 증평군 | 2019 결 | 25 | 322 | 79,134 | 26,382 | 42,649 | 9,903 | 200 |
| | 2020 결 | 21 | 232 | 76,763 | 18,467 | 33,784 | 23,412 | 1,100 |
| | 2021 예 | 28 | 353 | 130,379 | 29,256 | 54,893 | 35,878 | 10,352 |
| 진천군 | 2019 결 | 15 | 181 | | | | | |
| | 2020 결 | 13 | 101 | | | | | |
| | 2021 예 | 15 | 117 | | | | | |
| 괴산군 | 2019 결 | 21 | 138 | 42,828 | | 35,618 | 460 | 6,750 |
| | 2020 결 | 21 | 138 | 36,730 | | 27,590 | 330 | 8,810 |
| | 2021 예 | 21 | 193 | 34,865 | | 34,865 | | |
| 음성군 | 2019 결 | 41 | 5,881 | 7,935 | | | 7,935 | |
| | 2020 결 | 15 | 6,880 | 2,835 | | | 2,835 | |
| | 2021 예 | 22 | 5,335 | 13,492 | | | 13,492 | |
| 단양군 | 2019 결 | 15 | 200 | | | | | |
| | 2020 결 | 11 | 81 | | | | | |
| | 2021 예 | 30 | 151 | 15,540 | | | 13,840 | 1,700 |

주*) 마우치 수익금임.

주1) 2021년 총 프로그램 수와 총 참여인원은 2021.1.1.~8.31. 기준임.

주2) 혜원장애인복지관은 자료 미확보에 따른 미상임.

주3)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포함됨.

3) 인력

2021년 6월 30일 기준, 평생교육 담당 인력 현황은 아래 <표 III-6>과 같다. 충청북도 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은 총 43명으로 보은군과 단양군이 1명으로 가장 적고, 괴산군이 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내 평생교육 전담 인력의 인원은 총 25명이었고,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세 곳으로 확인된다. 전담 인력은 평생교육 담당 인력이 7명으로 가장 많았던 괴산군은 1명이었고, 청주시의 두 복지관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생교육 담당 인력의 평생교육사업의 경력은 2.5년으로 나타났다.

<표 III-6> 평생교육 담당 인력 현황

| 구분 | 2020년 발달장애인 수 | | | 담당 인력 | 전담 인력 | 담당 인력 1인당 발달장애인 수 | 전담 인력 1인당 발달장애인 수 |
|-----|---------------|-----|--------|-------|-------|-------------------|-------------------|
| | 지적 | 자폐 | 전체 | | | | |
| 전체 | 10,656 | 781 | 11,437 | 43 | 25 | 266 | 457.5 |
| 청주시 | 4,619 | 434 | 5,053 | 10 | 10 | 505.3 | 505.3 |
| 충주시 | 1,285 | 119 | 1,404 | 5 | 3 | 280.8 | 468.0 |
| 제천시 | 1,033 | 65 | 1,098 | 4 | 2 | 274.5 | 549.0 |
| 보은군 | 300 | 11 | 311 | 1 | 1 | 311.0 | 311.0 |
| 옥천군 | 558 | 23 | 581 | 2 | 2 | 290.5 | 290.5 |
| 영동군 | 375 | 21 | 396 | 4 | 4 | 99.0 | 99.0 |
| 증평군 | 267 | 19 | 286 | 3 | | 95.3 | |
| 진천군 | 461 | 34 | 495 | 2 | | 247.5 | |
| 괴산군 | 406 | 9 | 415 | 7 | 1 | 59.3 | 415.0 |
| 음성군 | 1,117 | 39 | 1,156 | 4 | 2 | 289.0 | 578.0 |
| 단양군 | 235 | 7 | 242 | 1 | | 242.0 | |

주1) 청주시는 총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자료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1개소의 현황 자료임.

주2)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은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주3) 발달장애인 인구는 2020년 기준임.

아래 <표 III-7>은 2020년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수와 앞서 살펴본 평생교육 담당 인력 현황과 함께 비교·제시하고 있다. 2020년 충청북도 내 전체 발달장애인 11,437명 기준, 평생교육 담당 인력 1명이 평균 약 226명의 발달장애인을 맡고 있으며, 전담 인력 1인당 약 457.5명의 발달장애인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담당 인력 1인당 맡는 발달장애인 수가 약 505.3명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이 약 59.3명으로 가장 적다. 전담 인력 1인당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음성군으로 약 578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약 99명의 영동군이였다. 증평군, 진천군 그리고 단양군은 평생교육 담당 인력이 모두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담 인력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7> 충청북도 발달장애인과 평생교육 담당 인력 현황

| 구분 | 총 인원 | 전담 인력 인원 | 직급 | 평생교육사업 경력 | | | 소지자격증 | |
|-------------------|------|-------------------|-------------------------------|-----------|-------|------|-------|---------------------------------|
| | | | | 최소 | 최대 | 평균 | 공통 | 그 외 |
| 청주시 장애인 복지관 | 5명 | 팀장 1명 팀원 4명 | 팀장 1명 팀원 4명 | 0.7년 | 3.2년 | 1.5년 | 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 |
| 혜원 장애인 복지관 | 5명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 1.4년 | 11.8년 | 4.7년 | 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 |
| 충주시 | 5명 | 사회복지사 3명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정보화교사 1명 | 0.2년 | 2년 | 0.9년 | 사회복지사 |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장애인재활 상담사 등 |
| 제천시 | 4명 | 주임 2명 | 과장 1명 대리 1명 주임 2명 | 1년 미만 | 8년 | 3.3년 | 사회복지사 | |
| 보은군 |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2.5년 | | | 사회복지사 | |
| 옥천군 | 2명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 1년 | 2년 | 1.5년 | 사회복지사 | |
| 영동군 | 4명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 1년 | 4년 | 2.3년 | 사회복지사 |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등 |
| 증평군 | 3명 | 0명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 1년 | 3년 | 1.7년 | 사회복지사 | |
| 진천군 | 2명 | 0명 | 사회복지사 2명 (3급 1명, 4급 1명) | 0.5년 | 1.8년 | 1.1년 | 사회복지사 | |
| 괴산군 | 7명 | 사회복지사 1명 | 팀장 2명 사회복지사 5명 | 0.3년 | 7.5년 | 3.1년 | 사회복지사 | |
| 음성군 | 4명 | 팀원 2명 | 팀장 2명 팀원 2명 | 1.3년 | 4.9년 | 2.8년 | 사회복지사 | |
| 단양군 | 1명 | 0명 | 팀장 1명 | 4년 | | | 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 |

4) 협력 연계기관

충청북도 1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을 위한 협력 기관 현황은 아래 <표 III-8>과 같다. 협력 기관 수는 총 124개소로 0개소에서 45개소의 분포를 보인다. 청주시가 45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9개소, 괴산군 16개소, 옥천군 11개소, 영동군 6개소, 영동군, 음성군 그리고 단양군 4개소, 진천군 3개소, 제천시 2개소의 순이었다.

기관 구분에 따른 현황은 민간사업체가 56개소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38개소, 관공서와 기타 공공기관이 각각 15개소로 확인되었다. 비영리법인과 민간사업체와는 프로그램 강사 지원, 운영 지원, 참여자 연계, 장소 연계 등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전반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공서와 기타 공공기관 역시 프로그램 운영상의 협력과 더불어 사업 예산 및 실적 보고, 사업예산 지원, 프로그램 홍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연계, 기타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협력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III-8> 평생교육 협력 기관 현황

| 구분 | 협력 기관 수 | 기관 구분 | | | |
|-----|---------|-------|---------|-------|-------|
| | | 관공서 | 기타 공공기관 | 비영리법인 | 민간사업체 |
| 전체 | 124 | 15 | 15 | 38 | 56 |
| 청주시 | 45 | 1 | | 19 | 25 |
| 충주시 | 29 | 2 | 3 | 10 | 14 |
| 제천시 | 2 | | 2 | | |
| 보은군 | 4 | 1 | | 2 | 1 |
| 옥천군 | 11 | | 2 | 1 | 8 |
| 영동군 | 6 | 3 | 2 | 1 | |
| 증평군 | | | | | |
| 진천군 | 3 | 2 | 1 | | |
| 괴산군 | 16 | 4 | 3 | 2 | 7 |
| 음성군 | 4 | | 1 | 2 | 1 |
| 단양군 | 4 | 2 | 1 | 1 | |

주1) 청주시는 총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자료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1개소의 현황 자료임.

2. FGI(Focus Group Interview)결과 분석

1)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수준에 대한 전문가 관점을 분석하고자, 한국장애인복지관 충북협회 소속 11개 장애인복지관 평생학습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질적 연구의 목적 표집에 준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이 적용되었다. 첫째,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경험이 있으며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전문가이다. 추천된 장애인복지관 평생학습 담당 팀장들에게 연락을 취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참여를 확정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FGI 연구참여자 정보

| 번호 | 표기방법 | 기관명 | 소속팀 | 성별 | 직책 |
|----|------|----------|---------|----|----|
| 1 | A | 노인장애인복지관 | 자립지원과 | 남 | 과장 |
| 2 | B | 장애인종합복지관 | 평생교육팀 | 남 | 팀장 |
| 3 | C | 장애인복지관 | 교육지원팀 | 남 | 팀장 |
| 4 | D | 장애인종합복지관 | 평생교육팀 | 남 | 팀장 |
| 5 | E | 장애인복지관 | 여가지원팀 | 여 | 부장 |
| 6 | F | 장애인복지관 | 사회통합지원팀 | 남 | 팀장 |
| 7 | G | 장애인복지관 | 기획문화팀 | 남 | 팀장 |
| 8 | H | 장애인종합복지관 | 평생학습지원팀 | 여 | 팀장 |

(2) 면담 내용

자료 수집의 첫 번째 절차로 심층면담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현재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태 및 현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

영과 관련된 실태 및 지원요구, 정책 제안이나 개선점, 필요한 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도록 면담 질문내용을 수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선점과 요구 파악을 위한 질문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정하였다. 최종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 면담질문지 내용

| 구분 | 면담 질문 내용 |
|-----------|--|
| 실태 및 지원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을 하면서 알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가? (교육을 통해 재활, 자립 사례 혹은 직업, 여가 등으로 이어진 사례) -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극복하기 위해 담당자로서(혹은 기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 정책 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제안할 의견은 무엇인가? |

(3) 자료 분석

① 준비 : 연구자 집단은 FGI를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한 예비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 상호 검토 및 현장 적격성 검토를 통하여 최종 면담 내용을 반구조화 하였다. 연구자 집단 사전 협의회를 통하여 질문을 제시하는 방법 및 진행 중의 주의할 점을 점검하였다.

② 시행 : FGI는 충청북도 12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인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FGI의 진행은 연구자 모두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면담 진행자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양하여 유연하게 면담이 진행되도록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장소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였고, 사전 동의하에 면담 과정을 녹취하기 위해 고성능 녹음기 2대를 설치하였다. FGI는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진행하였는데, 도입부에는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지한 연구의 목적, 방법, 자료 수집 및 자료 활용 범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 과정을 통하여 진행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원활한 라포형성을 촉진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자가 사용하는 모든 용어는 명확하게 사용하고자 하였고, 사회자의 생각이나 지식을 배제한 중립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는

면담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사항이나 빠진 점은 없는지 참가자들에게 확인하였다.

③ 분석 : 이 연구의 FGI의 모든 과정은 녹취되었고, 면담이 끝난 뒤 전사 자료 작성을 통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귀납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 과정에서 수집한 녹취 자료는 한글프로그램을 통해 전사하였다. 둘째, 전사 자료는 6명의 연구자와 장애인 현장 전문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개방 코딩(open coding) 과정을 통해 범주를 생성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자 집단의 상호 검토를 통하여 공통된 주제를 정리하고, 분석 결과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심층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범주를 토대로 주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2) 분석 결과

<표 III-11> FGI 내용 분석 결과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의미단어(개념) |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갖는 의미 | 평생학습은 삶의 기본 | 참여 자체가 자신감의 기회 가족 내 활동으로 가족관계 향상 개별화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
| | 시민으로서 역할을 가짐 | 보조강사로 직접 참여해 자립에 도움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행사 참여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 교육과 보호의 경계에 있음 | 평생학습을 '시설보호' 개념으로 바라봄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인력 부족 참여형 수업으로 기능수행정도가 좋아짐 |
| | 교육을 위한 자원의 공유 부족 |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환경 및 보조기기 지원 찾은 직원, 강사 교체로 지속성 낮음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기반한 평생교육 과정 설계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지역연계가 있어야 함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 제도적 기반 마련 | 연속성을 위한 시군중심의 예산 지원 필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확대 |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갖는 의미

□ 평생학습은 삶의 기본

○ 참여 자체가 자신감의 기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른 장애 유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학습, 문화, 취업, 자립기반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특히,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 주장대회에 참여하고 입상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어 지역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이들이 있었다.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00복지관에서 주관했던 자기 주장대회에서 수상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 성취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을 했을 때 자신감으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병행했던 건 자기주장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했어요. 이게 갑자기 대회 나가서 수상하고 부터 자신감마저 쪽~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성공 경험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그게 지역사회 가서 뭔가 주문하고 계산하는 행동을 할 때도 조금 어색했던 모습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나오더라고요.” (참가자 E)

“취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만 따고 훈련만 계속했었는데 군청 도움으로 카페 오픈을 하게 되고 파트타임이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표현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얻어진 수입으로 자기가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구매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부모님께 베풀거나 동생들에게 베풀거나 자연스럽게 이뤄지다 보니까 성취감을 얻어 일할 수 있는 즐거움과 중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참가자 C)

“평생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단순히 배운 것으로 본인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활용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 A)

○ 가족 내 활동 참여로 가족관계 향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는 당사자의 사회참여 뿐 만 아니라 가족관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비대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가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홈베이킹 프로그램, 집콕 생활키트, 체육활동, 정리수납 등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되었다. 물론 가족 지원이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관계 향상, 관심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도록 과제를 부여해서 소통하는 횟수나 빈도수를 높이고 있고, 코로나 등으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보호자분들의 지원도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정리수납 프로그램 교육 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피드백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참여자 H)

○ 개별화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다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화계획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요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개별화를 수립한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성과는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봤을 때 자기결정권은 자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개별화 교육을 수립하고 예전에는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면 지금은 본인 하고 싶은 것을 의사 표현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들이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참여자 A)

“개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진 것을 보아 개별화 교육을 수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참여자 H)

□ 시민으로서 역할을 가짐

○ 보조강사로 직접 참여해 자립에 도움

평생학습 프로그램 보조강사 활동이나 기능경기대회 출전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이 일반 강사와 파트너로 함께 나가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소감을 발표하면 강사비로 1회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하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3천만 원은 성인발달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서 진행하는데 취업이나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에요.”(참여자 B)

“장애인복지관의 강점은 직업 재활팀이 있고 이팀과 연계해서 취업 연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오래 반복하면서 수행도가 높은 분들을 직접 보조강사로 활동하게 하고 자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평생교육에서 익힌 기술로 기능경기 대회에 매년 출전을 하고 수상한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들에게 동기부여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커요.”(참여자 D)

○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행사 참여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통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관내 행사뿐만 아니라 복지관 위치상 상가번영회와 연결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작품을 두꺼비 마을신문 상가에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액자에 전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 인식 개선도 되더라고요. 상점에 발달장애인분들 작품이 걸렸을 때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커서 취업도 연계하고 자립도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참여자 D)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 교육과 보호의 경계에 있음

○ 평생학습을 ‘시설 보호’의 개념으로 바라봄

평생학습은 지역사회 의 일상생활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직업생활을 중심으로 주거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생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을 주간보호, 직업훈련과 같은 시설 보호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달프로그램 자체가 꾸준히 이용하는 장기적 이용 비율이 조금 낮은 게 이용을 하 시다가 직업훈련파트에 직업추천도 하고, 주간 보호에 대기 순서가 되어서 가기도 하고, 발달프로그램 자체를 꾸준히 이용하는 참여 비율이 조금 낮아요.”(참여자 H)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복지관에 보내고 싶은거지 평생학습이 중요한게 아닌 것 같 아요. 우리 자녀가 가면 몇시간 정도 할 수 있는거냐? 몇 시간 더 해주면 안되느냐? 등 을 질문하며 주간보호 같기를 희망하죠.”(참여자 C)

○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인력 부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된 제26조 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에 따라 발 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별로 질 높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해당 프로그램 강사 등은 실 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해 종사자는 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가진 강사를 찾기가 어렵다.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이어서 상담 전문성 역량 강화가 필요해요. 상담 전문성이 매우 중요해서 프로그램의 시작 전이나 끝난 후 담당자와 상담의 기회를 많 이 갖고 스터디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봐요.”(참여자 D)

“사회복지사 인력으로는 모두 수행하기 어려웠어요. 좀 더 예산을 투입하여 발달장애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전문가들이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강사 및 보조 인력이 필수인데 인력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복지관 내 다른 팀의 지원이나 다른 장애인 유형의 당사자 분들이 지원해주기도 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려다 1학기가 다 지난 적도 있었어요.”(참여자 H)

○ 참여형 수업으로 기능수행 정도가 좋아짐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연계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은 보조강사 참여, 바리스타 참여, 실무현장실습 등을 수행하면서 참여형, 실습연계형 평생학습 참여가 취업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교육 100시간 이수 후 시험 보고 취득하고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이 계시고요.”(참여자 D)

“자격증을 취득해서 궁극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 실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복지관 내 카페 말고 실제 일반회사나 현장취업으로 연계되기에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후 실제 현장실무를 익힐 수 있는 심화 과정 반을 추가해서 현재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요.”(참여자 H)

“직장 내 인식개선 보조강사 지원사업에 참여시키고자 직업지원팀과 연계 해서 취업이나 자립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복지관 내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참여자 B)

□ 교육을 위한 자원의 공유 부족

○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환경 및 보조기기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학습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을 읽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참여 시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SNS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면 가정에 장비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참여가 어려워서 직접 집에 가서 가정에 영상 장비를 중고컴퓨터를 정비해서 설치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안내문이나 정보 홍보물을 만들어도 발달 장애 당사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소통 도구 자체가 부족하죠...(중략)...그런데 또 여러 가지 연구 및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와이파이 문제, 당사자 역량, 통신비 문제 등 복합적으로 아직까진 어려움이 있습니다.”(참여자 B)

○ 잦은 직원, 강사 교체로 지속성 낮음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인력이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마저도 강사 섭외가 어려워 항상 인력 확보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다.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담당자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생학습 지원의 지속성이 낮아지고 있다.

“인력 부족이 있어요. 강사 섭외를 해도 보조강사가 없으면 개별적인 코칭이 어려워요. 반복훈련을 하더라도 훈련에 투입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족들의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톡방을 일일이 찾아가 만들어 직접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나서야 참여를 했어요.” (참여자 E)

“저희도 강사 인력 부족한 부분은 비슷하고요. 보조강사는 더더욱 어렵고, 코로나로 키트 배포도 외부인력 봉사 투입이 힘들고 가끔 외부 강사 배정을 해서 강사가 수업을 진행해도 이분들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힘들어하세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마을 학교 같은데도 수소문하지만 군 단위로 오는 강사가 별로 없어요. 예산이 있어도 가르칠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담당자가 배워서 활용하는 방법을 하니까. 저희는 일도 하고 배워야 하고 업무의 과도가 있죠. 근데 또,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면 당사자는 더 만족해하세요.”(참여자 C)

“행정적 업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프로그램까지 함께 진행하기에는 어려워서 담당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 초까지 코로나 등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으로 하면서 더 힘들어진거 같아요.” (참여자 B)

○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기반한 평생교육 과정 설계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에 기반하여 평생교육 과정을 매칭하고 설계하는 개별화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여 한정된 혹은 동일한 평생교육영역을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 요구를 중시하여야 한다.

개개인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개인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별화된 평생교육 매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비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는데 반해 지금 이루어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대체로 장애라는 범주로만 묶어서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다른 장애 유형과 좀 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예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별도의 사업,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요. 참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매뉴얼이나 틀, 자료들이 현장 중심으로 나오면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발달장애인의 직접적인 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봐요.”(참여자 A)

“발달장애인 특성상 개인별 요구를 담은 개별화 교육을 수립한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과업 달성이 극소수지만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참여자 C)

“장애특성상 자기주장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너무 수동적이다 보니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어서 친구들이 쫓아다니기 바쁜 상황이 안타까워요. 당사자가 선택하기보다 그런 것들도 보호자가 주로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서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F)

○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지역연계가 있어야 함.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평생학습 운영 필요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영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문성도 갖고 있고, 경험적인 부분도 충분히 갖고 있고, 이미 서울 경기 외 타지방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복은 아직 그런 부분이 미약한 상황이에요.”(참여자 D)

“공통적으로 꿀잼의 경우 잘 운영되다가 예산이 끊기고 나서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성이 있었고,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협력하여 이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중략)... 교육기관과 학교하고 장애인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대인관계, 사회교육, 수 개념 교육을 여러 가지 같이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참여자 F)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그중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들과 소통을 하려면 먼저 발달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니까.”(참여자 C)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공무원도 저희도 전문적이지 못하고 특화된 것들이 없어요.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하고 인력 총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죠.”(참여자 D)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제도적 기반 마련

연속성을 위한 시군중심의 예산 지원 필요

꿀잼 연합사업 이후 도내 2개소(청주시, 충주시)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위해서는 외부공모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속적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외부공모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청주시나 도 지자체 어디든 첫 물꼬를 터서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예산이 지원됐으면 합니다.”(참여자 H)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선 복지관이 선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건 여럿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 논의되어야 합니다.”(참여자 D)

특히, 군단위 농촌지역의 경우 발달장애인들이 무료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주 목격되지만 이동성, 접근성 문제로 인해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군 단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이 오시면 진짜로 로비에 계시다가 그냥 집에 가는 일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면 저희가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셔틀이 있지만, 평균 왔다 갔다 1~2시간 걸리다 보니 담당자들이 픽업을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참여자 C)

“꿀잼 및 온달 프로그램 이후 군 단위 복지관은 외부 프로포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면 그 사업이 없어져요. 그러면 인건비가 동반된 외부지원사업을 따와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거죠.”(참여자 G)

“개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 특성상 익숙한 담당 직원이 꼭 연계되어야 하는데 직원의 잦은 이직 및 퇴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 담당 직원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하며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참여자 F)

○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청주시, 충주시가 2020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친화도시’사업에 선정되어 2020~2021년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계기가 되면서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같이 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참여자 B)

“최근에 꿀잼이랑 온달코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칭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립 생활에 개선이 많이 개선돼서 장애인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에 발전이 돼서 보기 좋았고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꿀잼이나 온달 프로그램 같은 연합사업, 공모사업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G)

○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의 욕구를 반영해 개발 과정을 거치더라도 프로그램의 질이나 운영의 효율성 등은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효과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중에 발간된 자료나 콘텐츠는 실제로 현장과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춘 교재를 만들어 쓰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 나름의 해결방식으로 노력을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D)

“아직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이 따로 없어서 타 복지관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배우고 싶고, 현재 이 팀에 온 지 1년 미만이라 무얼 보고 해야 할지를 몰라서 좋은 사례집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싶어요. 막연해서 샘플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요.”(참여자 G)

○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확대

가정, 사회적 고립의 성향이나 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왕복 이동시간이 2~3시간이 걸리는 농촌 지역의 경우 물리적 거리를 좁히지 못해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1:1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 및 인력 요구가 필요하고 다른장애 유형처럼 새로운 교육과정, 방법이 개발되어야 해요. 발달장애 교육과정에서 반려동물관리사, 픽토그램 자격 같은 시의성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복지관이 문화여가, 취미여가활동에 국한되어 있어서 한계를 벗어나야 해요.”(참여자 D)

“한 부모, 다문화 가정의 발달장애인인 경우가 있어서 그냥 두면 방치될 수 있기에 학교에 가서 기다렸다가 직접 데리고 오고 그럴 때, 기관에서 중간 조절 역할이 필요 하기도고요. 보호자들이 관심이 있으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하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서 치료 끝나면 가정으로 귀가 시켜주는 일도 있어요. 안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없는 거죠.”(참여자 G)

IV. 결론 및 제언

1. 연구요약

1)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2019년 외부지원사업 중단 이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던 연구 목적에 따라 시군별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예결산, 담당 인력, 연계기관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총 236건이며 문화체육예술교육이 과반수(57.6%)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프로그램의 총 건수는 7건에서 57건의 분포를 보이며 청주시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 7건으로 가장 적다. 2021년에 수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총 269건으로, 2020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예술교육이 과반수(58.7%)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프로그램의 총 건수는 7건에서 64건의 분포를 보이며 청주시가 64건, 제천시가 7건이다. 2020년 대비 2021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 수행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건수를 기준으로, 모든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시, 2020년은 1건당 평균 48.5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게 되고, 2021년은 평균 42.5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2020년 발달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발달장애인 1인당 개설된 프로그램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0.01건에서 0.10건의 분포를 보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의 사업 건수가 감소한 곳은 총 네 곳(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었고,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그리고 옥천군은 2019년 대비 2020년 발달장애인 사업 수와 참여인원 수가 증가하였다. 예·결산의 경우, 결산액과 예

산액을 단순 비교하기엔 제한이 있겠으나 제천시와 괴산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21년 예산이 2019년 결산액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달장애인 사업이 가족지원 등과 통합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 평생교육사업 전용 예산의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밝힌다.

셋째, 평생교육 담당 인력은 보은군과 단양군이 1명으로 가장 적고, 괴산군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세 곳이었다. 2020년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수 11,437명을 기준으로, 평생교육 담당 인력 1명이 평균 약 226명의 발달장애인을, 전담 인력 1명이 약 457.5명의 발달장애인을 맡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협력·연계기관은 민간사업체가 56개소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38개소, 관공서와 기타 공공기관 각각 15개소로 확인되었다. 주된 협력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연계,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우수 프로그램 공모 연계 등이 제시되었다.

2) FGI (Focus Group Interview)

FGI는 한국장애인복지관 충북협회 소속 11개 장애인복지관 평생학습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첫째,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경험이 있으며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전문가이다. 질문 내용은 현재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태 및 현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실태 및 지원요구, 정책 제안이나 개선점, 필요한 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3개의 상위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6개의 의미단어가 도출되었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갖는 의미로, ‘평생학습은 삶의 기본’, ‘시민으로서 역할을 가짐’으로 하위범주를 나누었다.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얻기도 하며 가족과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생교육은 시민으로서의 역할, 예컨대, 보조강사로 직접 참여하게끔 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교육과 보호의 모호

한 경계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발달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지역연계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평생교육 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꿀잼 연합사업 이후 도내 2개소만 지원을 받고있는 상황은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에, 외부공모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동반되도록 관계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장애인 친화도시’ 선정 등과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더욱 많이 마련되고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였다.

2. 제언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그 의미의 확장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담당 인력들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참여하는 것 자체로 삶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보았다.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배움의 기회일 뿐 아니라, 참여하는 과정 동안 발생하는 가족 내 활동으로 가족관계가 돈독해지며, 다른 이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대인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개별화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특히나 성인기 진입 시 서비스의 단절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활동 참여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제약을 더욱 많이 겪기에 평생교육은 참여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필수 요소로 볼 수 있다(이현주, 정평강, 2021).

즉, 비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다른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직·간접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갖는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참여는 발달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통로이자 원동력인 것을 인지하고 그 가치를 되새기며 제공자 관점이 아닌 이용자인 발달장애인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활성화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화체육예술교육의 비중이 약 50%대로 상대적으로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영역의 평생교육은 적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 규모로 실시된 특수교육 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4)에서도 관찰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쏠림 현상(1), 전국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영역이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2017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청북도협회 평생교육지원단에서 발간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도 규정하는 사항이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해당 법률 제26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 및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3)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 먼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그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한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최복

1) 전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교육이 51.2%, 인문교양교육이 14.5%, 직업능력향상교육이 11.2%, 기초문해교육이 10.7%, 학력보완교육이 6.6%, 시민참여교육이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 김미옥, 김주영, 성명진, 전해인, 제철웅 등, 2015)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본교육과 과목별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시행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최복청 등, 2015)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과 위의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의미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 교육과정을 크게 기본 교육과정, 각과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교육과정은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기술, 지역사회적응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며,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기초생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과정이며, 과목으로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있다. 각과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교과로 편성한 교육과정이자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요구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 과목은 총 여섯 개로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로 구성된다.

위 두 가지의 교육과정 분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전제로 함을 예측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된 특징으로 제시되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의 종료 후 그간 익혀온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적응기술 등의 기초생활기술을 유지해나갈 기회가 줄어들어 점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특징마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다(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 당사자 관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육 기획

하지만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달장애를 하나의 장애유형으로 단일 집단화하여 평생교육을 제공하거나,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거나 혹은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보호자의 요구가 더 반영되는 평생교육 과정이 제공되곤 한다. 이 같은 설계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된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요구와 매칭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평생교육 기획단계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진행하여 그들의 특성과 평생교육 관련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관련 부처의 예산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며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의 큰 틀에서 주간보호와 직업훈련과는 차별성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기반 마련

FGI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요구를 탐색한 연구(정평강, 이현주, 이영선, 구정아, 2019)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수혜자인 발달장애인 역시 같은 지점에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방안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와 평생교육의 운영방안 모색을 제안한다.

(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충분한 예산 확보

먼저 평생교육사업 수행에 있어 예산의 중요성은 본 연구의 FGI 결과를 비롯한, 정평강 등(2019), 차재경, 박영근과 이재호(2021)의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들에 의해서도 강조된 사항이다. 그만큼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이 장애인복지관(이상진, 2018)인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은 평생교육 운영이 주된 목적인 일반 평생교육시설과는 달리 평생교육을 위한 기자재, 교육 시설,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조창빈, 정해동, 김두영, 2018)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평생교육법 제26조 3항은 제1항에 의해 지

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 및 자료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적정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위드코로나 진입에 따른 평생교육 운영방안 모색

평생교육 운영방안, 다시 말해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의 제약은 장애인 평생교육 영역도 피해갈 수 없었고, 다수의 평생교육 사업이 전면 중단 또는 연기되곤 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째인 지금,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접어들었고 현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 가이다.

예컨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으나 다수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학습 관련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발달장애인은 변화된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에 이들이 이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운진, 김남숙, 이기성, 2021). 더욱이 전면 비대면 진행 시, 기계 사용법 숙지는 물론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조 인력 또한 함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 중구에서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한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발달장애인 7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1회 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은 교육장 내부에 설치된 대형화면을 바라보고 동작을 따라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를 보조하는 형태이며, 이 프로그램은 짐볼, 근력밴드 등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인지기능 향상까지 목표로 한다(박종일, 2021).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통합 가족 프로그램인 ‘집에서 놀아요’를 2021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장애인식개선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 단위 프로그램인 ‘놀러오세요!’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키트를 인터넷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푼 선착순 30명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션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놀이키트를 활용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한 선착순 10명에게는 어린이 인디언 텐트와 다음 회기 ‘놀러 오세요!’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학인, 2021).

이외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가족프로그램 ‘같이 놀아요-집 현전(‘집에서 현재 노는 사람 전부 모여라’의 줄임말) 한글사랑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한글 보드게임 놀이키트를 활용한 것으로 온라인 한글 퀴즈대회로 진행되었다.



5)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확대

(1)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인력 추가 확보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과 전담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11개 시·군 모두 담당 인력은 있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인력은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에는 부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인력의 부재하거나 담당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어려우며 평생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의 심화로 결국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김두영, 조창빈, 정해동, 2018).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인력의 충분한 확보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와 최소한의 프로그램 질 확보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각 기관의 이용자, 종사자, 프로그램 등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만큼 요구되는 적정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배치

여기서 지칭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란, 특수교사 혹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혹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 당사자 상담,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능력을 두루 갖춘 자로 정의한다(조창빈, 김두영, 2016).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채용 시 자격을 갖춘 자 즉, 평생교육 전문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이 예산의 부족과 강사 수급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강사에 의한 제공되는 평생교육보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김두영 등, 2017).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확보 수준, 나아가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의 배치 여부에 따라 평생교육의 수준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모든 장애인복지관에 특수교육 혹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까지 많은 시간 소요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이기에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전담 인력 배치 및 추가 확보를 선행하여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6)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확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인권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은 장애인과 직접 소통하는 종사자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힘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 혹은 인권침해 등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며 공감하고 장애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처한 상황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육과정의 내용은 단순한 장애에 대한 지식 습득 수준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겸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돕는 효과적이고 검증된 교수 방법과 전략 등을 익혀 교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 통합 평생교육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지역사회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위한 자원을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된 평생교육과도 연결되기에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강조하였다. 즉, 지역사회나 마을 단위의 통합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된 지역문화가 함께 해야 하지만, 지역공동체 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잔존 한다면 결코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심리정서적 연대, 문화의 공유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 옹호인 사업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활동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뿐 아니라 일반평생교육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조창빈, 2018), 이는 결국 많은 성인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분리된 환경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비장애인이 주된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의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평생교육 기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과 연계할 경우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교

육 프로그램 참여와 캠퍼스 투어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선진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선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와 충주시의 경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시범운영)을 수행한 바 있는데 단순히 프로그램 수행 후 종료 단계에서 매듭을 짓기보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꾀하는 환류의 과정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장애인복지관의 범위 내에 한정한다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청북도협회의 주도로 장애인복지 전문가,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 등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우수 사례의 기준을 세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안이 있겠다. 선정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홍보하거나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획단계부터 도출된 성과와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사회에 알린다. 워크숍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와 더불어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격차 해소는 물론, 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의 결과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의 내부자료와 충청북도 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의 인식과 경험에 기초하고, 평생교육의 당사자인 발달장애인 혹은 그 가족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석하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연구결과를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일반화하기엔 제한이 있다. 같은 발달장애 유형이라 할지라도 장애 정도와 연령대별로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다른 여러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중 충청북도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또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복지관에서 예산 투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6진 분류로 구분이 가능한 평생교육을 주되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돌봄서비스와 구분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 여전히 명확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위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학습자의 장애 정도, 프로그램 운영 주체 또는 프로그램 내용 등의 다양한 기준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인식 수준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 이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의 진일보한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강동선, 신진숙. (2015).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에 관한 기초 연구. 발달장애연구, 19, 1-22.
- 김두영, 강명희, 김호연, 박원희, 박애스더, 이경준, 이정미. (2017).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김두영, 조창빈, 정해동. (2018).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담당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연구, 25(2), 207-229.
- 김기룡. (2020).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4), 333-341.
- 김성희, 이연희, 오욱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오다은,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성호, 길혜지, 문미정, 박미현, 김나정, 안윤정. (2017). 201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박종일. (2021. 4. 21.). 장애인 가족 웃음꽃 피우는 ‘중구 건강운동교실’. 아시아경제.
- 송준만, 강경숙, 김미선, 김은주, 김정효, 김현진, 이경순, 이금진, 이정은, 정귀순. (2012). 지적장애아교육(2판). 서울: 학지사.
- 심석순. (202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49, 83-105.
- 오영석, 박원희. (2008). 정신지체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평생교육학연구, 14, 83-101.
- 이상진. (2018).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과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장애인 평생교육복지연구. 4(1), 31-64.
- 이윤진, 김남숙, 이기성. (2021). 코로나 19 기간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를 통해 본 노인과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온라인 교육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17(4), 55-85.
- 장학인. (2021. 8. 23.).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마을개방형 프로젝트 ‘집에서

놀아요' 운영. 경기신문.

-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방향 탐색. 특수교육, 2(1), 5-35.
- 정평강, 이현주, 이영선, 구정아. (2019).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 탐색. 평생학습사회, 15(4), 57-82.
- 조창빈. (2018). 경기도 거주 성인 지적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4(2), 29-48.
- 조창빈, 김두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7(4), 1-24.
- 조창빈, 김두영. (202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평생학습사회, 16(2), 233-259.
-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1), 195-217.
- 조창빈, 정해동, 김두영. (2018).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경기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9(2), 99-122.
- 최복천, 김미옥, 김주영, 성명진, 전해인, 제철웅, 오다은. (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0277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전화 Tel. 043.856.1100 / Fax. 043.856.1103
홈페이지 <http://www.cbr.or.kr>
인쇄처 아름디자인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전재·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